



# 정교회주보

제2578호  
2026년 5월 24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 바울로와 성 바르나바가 키프로스 교회를 받드는 모습을 그린 키프로스의 스타브로부니우 수도원 벽화

부활 후 제7주일  
(제1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멜레티오스 순교자  
(제6조 • 조과 복음 10)

## [20회] 헤어진 바울로와 바르나바

**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로와 바르나바 사이에 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첫 번째 여행 때 중간에 떠났던 마르코를 다시 데려갈 것인가를 두고 생각이 갈렸기 때문이었다.(사도행전 15,36-39) 이는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니라, 선교의 책임과 인간적 신뢰 사이에서 고뇌한 결과였다.

결국 바르나바는 마르코와 키프로스로, 바울로는 실라와 시리아로 향하며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안타까운 결별 같지만 교회는 이 갈등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섭리를 본다. 비록 선교의 길은 둘로 나뉘었으나 복음은 도리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훗날 마르코가 복음 선포자로 복귀하여 바울로와 화해한 사실(2디모테오 4,11)은 갈등이 단절이 아닌 성장의 계기였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하느님은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비로운 도구로 사용하신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2,3 응송 ..... 사도경 78~80
- 승천 찬양송 ..... 257
- 승천 입당송 ..... 257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 성 교부 찬양송 ..... 85
- 성당 찬양송
- 승천 시기송 ..... 257
- 사도경 : 사행 20,16~18; 28~36; 260
- 복음경 : 요한 17,1~13 ..... 105
- 승천축일 성모송 ..... 259
- 승천축일 영성체성혈송 ..... 259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승천 찬양송'

# 제1차 세계공의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제**1차 세계공의회는 참된 신앙이 우리의 구원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임을 힘있게 일깨워 줍니다. 성령의 빛을 받은 거룩한 교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용기와 사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한 본질을 이루시는 분)”라고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정교회적 신앙고백을 영원히 확증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의 바람이 불어와 신앙의 순수함을 흐리게 하려 하는 시대 속에서도, 니케아 신경은 여전히 교회의 안전한 닻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고백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의회는 일치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부들은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을 지녔지만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차

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민족적·언어적·사회적 정체성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난을 앞두고 대사제적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요한 17,11)

우리 사이의 일치는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분열은 큰 죄입니다. 신자들이 한 몸으로 일치할 때에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머무르십니다. 다툼과 분열이 시작되면 성령께서는 멀리 떠나가십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교부들의 중보를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교회 신앙 안에 굳건히 서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희망과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신속성 시대의 인내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바로 얻을 수 있는 인터넷과 전자시대의 편리함은 우리 대부분을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내라는 큰 덕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병원 진료를 기다리거나 어딘가로 가기 위해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쉽게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합니다.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한 가지 주제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거나, 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꾸준히 배워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 모든 일에 필수적입니다. 인내는 큰 힘이며, 특별히 시련과 문제, 재정적 어려움, 질병, 죽음 등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지닌 신앙으로만 우리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고난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지 않으면 기름을 얻을 수 없고, 금이 도가니에서 단련 되듯 사람도 시련 속에서 정화됩니다.

대리석이 조각가에게 “왜 나를 때리세요? 아픔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각가는 “너의 불품없는 돌덩어리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

기 위해 조각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종종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단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며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견책하시는 것입니다.”(히브리 12,10) 시련과 십자가 없는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맙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히브리 10,36)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분은 옅 의인과 성모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바라보셔야 했던 성모님은 인내의 표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인내의 힘을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합시다. 왜냐하면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기”(로마 5,3-4)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루가 6,48) 그는 자신의 삶이라는 집을 바위 위에 지었는데,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고린토 전 10,4)이시기 때문입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5월 30일(토)

영혼 토요일

추도식 (폴리바 준비하세요)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 가평 수도원 철야예배

6월 12일(금) 저녁 8시부터 철야예배 및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추도식(4주기)이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거행됩니다. 식사와 숙박 등 행사 준비를 위해서 참석 여부를 각 성당 사무실에 5월 30일(토)까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서울 성당 음향 시스템 교체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음향 시스템이 노후화와 여러 문제로 인해 더 나은 시스템으로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재정적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은행 1005-101-635905  
(한국정교회성니콜라스대성당)

## 알림

### ■ OKN(Orthodox Korea Network) 활동 소식

하느님의 도움으로, 또 크리스토퍼 보제의 인도에 따른 신데즈모스 청년들의 참여와 노고에 힘입어, OKN(Orthodox Korea Network)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 대교구의 활동과 소식이 국내외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교회 신앙을 증언하고 확산하는 이 선교 사업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는 31일(오순절 주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 ■ 가평 수도원 봉사활동

지난 15-16일(금-토), 서울 성당 장년회('하느님의 일꾼들')와 청년회(신데즈모스), 그리고 슬라브 교인들이 가평 구세주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묘지 청소, 예초 작업, 마당과 발 정리 등 수도원 안팎을 정리·보수·단장하였습니다. 또한 예배에 함께 참례하였으며, 처음 방문한 예비신자들은 성인들의 성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성껏 봉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 기도하는 시간

스키티의 사제였던 이시도로스 사부가 형제 수도자들에게 말했다.

“점었을 때 나는 정해진 기도시간이 따로 없었소.  
하루 종일 끊임없이 기도했고, 밤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